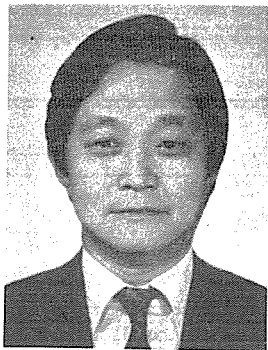


“研究開發事業 綜合調整指針에 一言”



나의 提言

具本湖 (經博·漢陽大大学院 副院長)

60年代와 70年代에 있어서 우리의 經濟成長은 주로 勞動과 資本의 量的投入擴大에 의해 이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現賃金水準이나 后發開途國의 最近 經濟활동을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양적 擴大를 통한 經濟開發戰略은 이미 限界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국제경쟁력 強化를 통한 산업구조 高度化戰略은 技術혁신으로 商品의 質的提高와 生産性 向上을 기할 수 있도록 轉換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最近 科學技術에에서는 「科學技術研究 開發事業 綜合指針(안)」을 발표하여 科學技術의 새로운 역할을 定立하고 연구개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大綱를 제시했다. 6 個項目的 基本施策이나 연구개발사업 綜合調整의 內容은 大体로 올바른 方向에서 잘 짜여져 있는 것 같다.

우선 質的改善이 量的擴大를 통해 잘 이룩됨이 通例임을 감안할 때 科學技術投資의 擴大나 研究人力 양성확대를 강조하고 있음도 당연하다 하겠다. 또 科學開發이 産業政策의 일환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民間企業의 技術 개발활성화 유도계획이나 政府出捐 연구기관과 民間기관과의 協力增大를 기획하고 있음도 올바른 方向提示인 것 같다.

그리고 核心技術개발에 대한 重點計劃이나 活用 가능한 사업에 우선을 강조하고 있음도 우리의 限定된 財源이나 투자 수익성을 重視한 점에서 좋은 착안인 것 같다. 끝으로 기초과학 진흥을 강조하고 있음도 기초과학의 발전없이 技術개발이 不可能함을 감안할 때 당연한 이치인 것 같다.

물론 앞으로 이러한 조정을 위한 더 구체적인 內容이 補完되리라 믿으나 차체에 필자가 평소 느꼈던 몇가지 점이 부각되었으면 하고 提言해 본다.

첫째는 二重構造의 除去문제이다. 투자 효율성은 기회균등의 터전에서 건전히 자라날 수 있다고 믿는다. 科學人의 能力이나 特性과는 랑곳 없이 政府出捐연구소와 大學연구소간의 현저한 差等的인 既存 二重構造는 조속히 除去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중구조의 除去는 좁은 의미의 투자의 효율성이나 수익성제고 뿐 아니라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해서도 절대로 중요한 일이다. 생각한다. 또 質的人力養成을 위해서도 가르침과 연구가 並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大學의 研究活動도 政府出捐研究所와 같은 水準으로 점차 改善되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또 科學振興과 高等教育振興이 同一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公共研究기관이나 政府出捐연구소나 大學연구소와 관계없이 研究課題에 따라 그 特性에 따른 적절한 交流結合이 되고 共同研究가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技術革新活動과 利潤動機의 연계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美國産業발전에 관한 Schmokler 교수의 多年間 研究結果에 따르면 기술혁신은 막연한 社會的 必要보다는 이윤동기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公共研究기관이나 政府出捐연구소의 研究活動이 産業界등 實需要者와 더욱 밀접히 연계 關連되도록 강구되어야 할 뿐 아니라 民間研究기관에 대한 지원도 並行되어야 할 것이다. 研究課題選擇에 있어서나 人力이나 施設活用に 있어서도 相互協調 내지 Pool化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효율적 技術導入에 관한 점이다.

우리의 現科學水準이나 또 限定된 財源을 생각할 때 적절한 기술도입은 自体技術開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효율적 기술도입과 자체 기술개발은 相互排除的이기 보다 오히려 相互補完的인 것으로 생각된다.

자체 기술능력이 提高되어야만 효율적 기술도입도 可能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율적 기술도입을 위해서는 또 우리의 産業構造나 經濟與件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기술선택 도입에 관해 研究界와 産業界의 밀접한 情報交流를 통한 경제성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와 關聯하여 体系的인 技術導入交涉能力도 提高되어야 할 것이므로 산업계가 活用할 수 있는 公共專門자문기구의 창설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연구분위기 造成에 관한 문제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研究職에 대한 社會的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研究人 自身들의 傳統도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 社會的 認識이 不足하면 그럴수록 相互 아껴가는 태도가 중요할 것이다. 技術開發에 있어서는 경험이 절대적인 자산이 되어야 하며 또 이것이 준수되는 전통이 확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Rome은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다.

연구분위기의 창달이 일조일석에 확립될 수는 없을 것이며 政府의 꾸준한 지원은 물론 研究人 자신들이 서로 존중하는 無形의 傳統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상 몇가지 提言은 결코 새삼스러운 것으로는 생각치 않는다. 또 政府의 調整안에도 군데 군데 담겨 있는 內容인 것 같다.

그러나 이상의 提言이 좀더 부각되었으면 하는 소망에서 한번 강조해 보았다.